

북한 작가들의 인권 진상

張 允 翼*

〈차 례〉

- | | |
|--------------------|-----------------------|
| 1. 문제 제기 | 4. 강요된 창작활동과 주체문학의 전개 |
| 2. 북한 사회의 인권 현황 | 5. 마무리 |
| 3. 작가들에 대한 인권탄압 실상 | |

1. 문제 제기

사람이면 누구나 당연히 가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가 인권이다. 이러한 당위성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만든 제도나 통치자의 독선에 의하여 인권이 짓밟히는 경우는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너무나 흔한 사실로 나타난다.

그러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는 인권신장에 대한 투쟁의 역사, 다시 말하면 자유쟁취를 위한 피나는 싸움의 역사로 점철되어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제도확립을 위한 고난의 투쟁과정도 모두 따지고 보면 보다 가치있는 개인의 삶과 인권을 찾고자 하는 쟁취노력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에도 세계 도처에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원천적으로 말살하는 반인권적인 제도를 확립하고, 그것을 통하여 인간들을 탄압하는 우상

* 경주대학교 총장

적인 독재자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그 중에서도 북한은 세계 각국의 언론기관은 물론이고, 유엔의 인권기관 보고서에도 가장 조직적으로 인권을 탄압하는 국가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 건설과 전체 조선민민의 투쟁에 복무해야 하는 북한작가들은 그 작가로서의 역할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이상으로 감시와 통제 기능도 더욱 치밀하게 장치되어 있어서 작가들에 대한 인권은 북한 내의 어떤 다른 직종보다 더 가혹하게 탄압되고 있다.

이러한 작가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인권탄압 실상은 개혁과 개방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공산권 사회에서도 심각한 인권유린 문제로 대두되어 있으며, 특히 작가들의 인권탄압 사건으로 등장했던 평양예술문화협회의 해체와 <응향(凝向)> 및 『관서시인집(關西詩人集)』 사건, 3차에 걸친 월북작가들의 숙청사건, 작가들을 밀랍인형으로 변화하게 한 강요된 창작활동과 개인 우상숭배의 문학 등은 반드시 밝혀져야 할 과제로 생각되어진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두고 북한사회의 인권현황과 북한 작가들의 인권탄압 실상을 검토해 보려고 한다.

- 인권의 기본개념에서 볼 때 북한사회의 인권현황은 인권 개념에 얼마나 상응하고 있는가?
- 북한 문학사의 시대구분과 거기에 따라서 인권탄압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
- 월북 작가들의 월북 동기와 유형은 어떠한가?
- 소련의 문학사 전개와 북한의 문학사 전개는 유사점이 있는가?
- 유일체제를 위한 주제문예와 강요된 문예창작 활동은 어떻게 전개되어 있는가?

2. 북한 사회의 인권 현황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천부적인 권리가 있다. 이

러한 천부적인 생명·자유·평등 등에 관한 인간의 권리를 인권이라고 말하며, 모든 권리는 인권에 귀착되어 그것을 중심으로 하여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이 인권의 기본개념이다.

인간의 기본권이 되는 인권은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으며, 그것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천명하기 위하여 유엔은 ‘세계인권선언(12. 10)’을 마련하고 다음과 같이 인권선언을 널리 공포한 것이다.

모든 인간은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평등하고 자유롭게 태어났다. 인간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서로를 우애의 정신으로 대해야만 한다. 바로 이러한 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인권인 것이다.¹⁾

유엔의 세계 인권선언은 이데올로기나 체제를 초월하여 만장일치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사상이나 체제를 막론하고 인간이면 누구든지 누려야 할 가장 원초적인 권리이다. 그리고 이 권리는 인종·언어·종교·성별의 차이나 정치적 체제 또는 사회구조의 차이점에서 오는 어떠한 불이익이나 억압도 있을 수 없는 자유 및 평등권인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자유권·평등권을 헌법으로 명문화하고,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인권에 관한 제반 사항들을 가장 기본적인 법률로 구체화하고 있다.

거주이전과 여행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문학·예술활동의 자유, 선거와 피선거권의 권리, 노동의 권리, 피교육의 권리, 무상치료 수혜의 권리, 휴식의 권리, 사생활의 보호, 주택의 불가침, 통신의 비밀보장, 인신의 불가침 등이 법률에 규정된 인권의 구체적 사항들이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지극히 상식적이거나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위와 같은 간단한 인권보호의 차원도 북한 사회에서는 거의 통용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들은 널리 알려진 폐쇄사회의 실상이기도 하다.

국제적 인권기구인 <아시아 감시위원회>와 <미네소타 변호사 국제인권위원회>가 조사한 북한의 인권실상에 대한 보고서에도 북한의 정치체제는 1인체제를 합법화하기 위한 반인권적인 독재체제로서 인민을 위한

1) U. N의 세계인권선언에 나타난 인권 개념.

사회체제와는 거리가 먼 불평등한 계급체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²⁾

북한 헌법 제51조는 “공민은 정치, 경제, 문화 등 국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산당원과 그 간부 및 정부 고관들과 일반 인민들의 엄격한 신분 차이는 말할 것도 없고, “전 인민들의 성분을 조사하여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 등 3개의 계층으로 분류하고 이것을 다시 51개 부류로 세분하였다.”³⁾

북한 사회내에서 모든 특권은 1%에 해당되는 당·정 지도급 인사들과 25% 미만의 추종자들인 핵심계층이 누리고 있으며, 절반 가까운 인구로 분포되어 있는 동요 계층은 주·부식이 부족한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다. 또한 적대계층은 과거에 부르조아로 낙인 찍힌 반동의 가족들이나 친일파, 지주, 종교지도자였던 인사들의 가족들로서, 그들은 자유권과 평등권을 빼앗긴 채 탄광, 집단수용소, 감옥 등을 전전하면서 비참한 생활을 감수하고 있다.

1987년에 귀순한 김창화·어성일 씨는 북한 주민들의 거주이전과 여행 자유의 제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일반주민들의 여행 신청은 14일 전에 해당 단위 직장장에게 제출하여 1차로 직장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2차로 군 행정위원회에서 노력동원 사항에 대한 검토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며, 3차로 해당지역 사회안전부 증명서 발급과에 3일 전에 여행신청서를 제출하여 동향 불순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대조 확인한 후에 비로서 여행증이 발급된다.

또한 여행자는 여행지에 도착하면 그 지역 인민반장에게 확인을 받은 후 숙박 등록부에 등록을 해야 한다. 그 숙박은 사회안전부에 비치되어 있는 수배대장과 대조된 후 여행증 뒷면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여행증에는 귀향일시가 기재되며 귀향 4일 전에 여행지 역전 분주소에 신고하여야만 승차권을 매입할 수 있다.⁴⁾

2) 남북문제연구소, <북한인권의 虛와 實>, pp. 20~22. 국제인권위원회의 보고서 내용.

3) Ibid, p. 26.

4) 1987년 귀순한 김창화·어성일 씨의 대담 증언.

이 증언에 의하면 북한 주민들은 여행이나 거주이전의 자유가 완전히 통제되어 있다.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받아야 하는 여행허가증과 승차권 구입은 특별한 사유없이 교부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말이 타당할 것 같다.

북한의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도 당과 국가의 통제하에서만 보장되며, 그것은 대중선동·인민교화·대중조직 등의 사회주의 사상을 교화하는 임무로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신문, 방송과 기타 출판물은 체제나 정책 등에 대한 비판은 금기 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그것은 당과 영도자의 정책 수행에 기여하는 매개자의 구실에 불과하다.

정부의 정책이나 사회체제는 말할 것도 없고, 각 분야에서 수행하는 정책적 모순이나 비리를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언론 관점에서 볼 때 방송이나, 북한의 언론·출판·집회의 자유는 거의 없는 상태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일반 텔레비전 방송 채널을 고정화하거나 집단 시청 및 유선에 의해서만 방송을 청취할 수 있는 것은 언론자유 탄압의 단적인 증거가 된다.

기독교·천주교·불교·이슬람교를 비롯한 세계의 모든 종교의 교리는 인간구원에 그 중점을 두고 있다. 현세에서의 자기 고행과 수양은 말할 것도 없고, 현세에서 이루지 못한 행복을 내세에서 구원받고자 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 요소이다.

그러나 김일성은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종교를 인정하지 않은 것처럼 종교는 미신이며, 인민을 기만하고 착취, 억압하는 도구로 표현하고 있다.

종교는 일종의 미신이다. 예수를 믿든지 불교를 믿든지 그것은 본질상 다 미신을 믿는 것이다. 종교는 역사적으로 지배계급의 수중에 장악되어 인민을 기만하고 착취·억압하는 도구로 이용되었으며, 또 근래에 들어와서는 제국주의자들이 후진국가 인민들을 침략하는 사상적 도구로 이용되었다.⁵⁾

김일성의 종교관이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5) 김일성 『김일성 저작선집』 1권 (조선노동당출판사, 1967, 평양), p. 49.

위장된 기독교단체인 <조선기독교연맹>은 대외 선전용으로 봉수교회를 설립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해외 기독교 단체와의 접촉과 남한내의 기독교 상황을 파악하려고 하였다. 또한 그 위장된 종교단체는 교계내에 불순분자들을 투입하여 남한사회를 혼란케 하는 통일전선의 구축을 주임무로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귀순자 및 방북 미주 교포들의 증언은 북한 종교실상을 잘 밝혀 주고 있다.

1988년 10월 대외 선전용으로 설립한 평양 봉수교회는 예배시에 직장마다 1명씩 차출하여 참석시키고 있으며, 선발되지 않는 주민은 예배에 참석할 수 없다고 한다. 또한 성경을 교회에 두고 다니므로 집에서는 성경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부에서 수시로 가택을 수색하여 성경을 압수, 소각 폐기하고 있다고 한다.⁶⁾

이러한 귀순자 및 방북 재미 교포의 증언은 북한에서의 선교활동이나 신앙활동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으며, 북한 내에서의 종교자유는 그쪽에서 체제변화가 가능할 때에만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믿어진다.

또한 북한 헌법 제60조에는 ‘공민은 과학과 문학 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의 노동당과 정부 당국은 헌법의 규정과는 전혀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김일성 교시에 입각한 사회주의 사실주의의 예술을 강요함으로써 예술활동의 자유를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당국의 문예정책은 당의 노선과 요구에 따라서 세 가지 창작방향으로 집약되어 있다. “첫째 문예작품 창작은 사회주의 사실주의를 고수·발전시키며, 둘째 문예창작 활동에서 인민성·계급성·당파성 등을 고도로 발양할 것이며, 당의 노선과 정책에 입각하여 근로자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하는 데 이바지하는 혁명적 문학예술을 창조하는 것을 과업으로 삼아야 한다”⁷⁾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예정책에 의하여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창작방법이 설정되고, 그것의 실천을 위하여 북한 당국은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철저히 감

6) 남북문제연구소, 앞의 책, p. 49.

7) 과학·백과사전출판사, 『문학예술사전』(1972, 평양), p. 365.

시함과 동시에 작품 출판에 대해서도 엄격한 통제를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북한 헌법 제60조에 기록되어 있는 예술활동의 자유는 하나의 장식적인 명문화에 불과하며, 북한 작가들의 창작활동은 인권의 기본 개념과는 너무나 먼 거리에 있다. 이것은 북한의 총체적인 인권침해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사면위원회는 10월 14일 발표한 <북한의 인권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지난 30여 년간 북한에서 수천 명이 고문당하거나 약식재판에 의해 처형됐으며, 양심수를 포함한 수만 명이 수감됐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수많은 정치범들이 제대로 재판도 받지 않은 채 재교육이라는 명목으로 강제노역장에 갇혀 추위와 굶주림·병마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 중 특별범으로 분류된 정치범들은 벌목장 등에 설치된 임시 캠프로 이송된다고 지적하고 일체의 먹을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 대부분이 사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또 국가 반역죄로 의심받는 사람들은 가족 전원과 함께 수감되고 이들 중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들에게 대한 공개처형도 흔히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면서 매년 수십 명이 불공정한 재판 절차에 따라 처형되고 있다고 보고했다.⁸⁾

국제사면위원회는 그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침해는 총체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오늘에도 지속되어 매년 수십 명이 불공정한 재판 절차를 거친 뒤 처형되거나 강제 수용소에 구금되어 있는데, 강제수용소에 갇혀 있는 양심수 가운데는 재일교포와 그들의 일본인 아내도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 본 북한 사회의 인권현황은 인권의 기본개념이나 유엔의 인권선언 및 대부분 나라들이 명문화하여 실천하고 있는 헌법 사항들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이것은 북한사회가 인간의 기본권이 되는 평등권과 자유권은 말할 것도 없고 가장 기초적인 생존권 조차도 유지할 수 없는 총체적 인권탄압의 폐쇄적인 체제라는 것을 명백한 사실로 확인시켜 준다.

8) 중앙일보, 1993. 10. 15.

3. 작가들에 대한 인권탄압 실상

작가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인권탄압은 시대 및 문학사의 전개과정에 따라서 약간의 성격 차이가 있으며, 소련 작가들의 인권탄압과정과 비슷한 진행으로 나타난다. 먼저 해방 이후라는 한계를 설정하고 북한 문학 예술의 진행과정을 살펴볼 때 『조선문학사』·『조선문학개관 2』·『문화예술사전』 등에서 구분한 시대구분은 대략 다음과 같다.

- 제1기-민주기지 건설기(1945년 해방으로부터 1950년 6. 25 남침까지)
- 제2기-조국전쟁 시기(6. 25 남침 전쟁기간)
- 제3기-전후 복구건설기(1953년 7월 휴전으로부터 1950년대 말까지)
- 제4기-천리마시대(1960년대의 군사력 증강과 경제력을 위한 총동원)
- 제5기-사회주의 건설기(1970년대~현재까지 김일성 주체사상의 일색화)⁹⁾

이기봉은 대체로 『조선문학사』의 시대구분을 따르고 있으나, 북한의 문학사 성격은 북한의 시대적 분위기나 사회적 여건을 감안하여 다르게 전개할 수도 있다.

제2기의 조국전쟁 시기를 제1기에 포함시킬 수도 있고, 제3기의 전후 복구건설기를 제4기에 포함시켜 전·후기로 나누어 서술할 수도 있다. 이 글에서는 편의상 제1기와 제2기를 함께 묶어서 논의하려고 한다.

해방이후 소련군과 함께 북한에 입국한 김일성은 프롤레타리아혁명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북한을 사회주의 건설기지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혁명을 진행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며, 따라서 그것의 실천을 위한 북조선 공산당의 조직개편과 각종 지원세력들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특히, 계급혁명의 전위대가 될 작가들의 힘은 레닌이 그의 예술론에서 밝힌 것처럼 필수적 혁명무기라는 것을 그는 깊이 인식한 것이다.

그러나 그당시 북한에는 혁명과업의 기수가 될만한 프롤레타리아 작가
9) 이기봉, 『북의 문학과 예술인』(思社研, 1986, 서울) p. 240.

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으며, 8·15해방 이전 카프(KAPF)를 중심 무대로 하여 무산자계급 문학에 열성을 기울이던 대부분의 작가들은 서울을 활동근거지로 하면서 예술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그들은 조선공산당(남로당)과 연계된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와 <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을 조직하여 사회주의 문학건설에 주력하면서 예술활동을 정치운동의 수단으로 삼아왔다.

다만, 해방 직후의 북한에는 최명익(崔明翊)·백석(白石)·양명문(楊明文)·황순원(黃順元)·오영진(吳泳鎭) 등의 작가들과 김동진(金東辰)·문학수(文學洙) 등의 음악가 및 화가들이 결성한 <평양예술문화협회>가 있었으나, 이 단체의 대부분 회원들은 공산당과 사회주의 문학에 전혀 관심이 없는 민족주의적 성향 추구의 예술가들이었기 때문에, 김일성은 이 단체의 성격을 북한의 공산화 혁명진행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

또한 이 단체는 조만식이 당수로 있는 <조선민주당> 노선에 호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군정 당국에 의하여 대외적 예술활동을 봉쇄당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다.

더 나아가서 소군정 당국과 북한 공산당은 <평양예문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재덕(韓在德)으로 하여금 문학활동 경력이 거의 없는 무명작가 이석진(李夕津), 이덕훈(李德薰) 등의 도움을 받아 <프롤레타리아 예술동맹>을 결성한 것이다.

그러나 김일성은 이러한 무명예술가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프로에맹>에 만족하지 않고, 남한에 체재하고 있는 한설야(韓雪夜)·이기영(李箕永)·김남천(金南天)·임화(林和) 등의 카프작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들과의 접촉을 위하여 한재덕으로 하여금 서울을 방문하도록 했다.

김일성은 한재덕의 어깨를 툭툭쳤다. 그러면서 ‘한선생, 이번에 서울에 가면 작가예술인들도 만나 보겠구만. 리기영, 한설야, 임화, 박세영 선생들 만나면 내 안부와 함께 내가 한 번 만나보고 싶다고 전해 주시오.’ 하고 일렀다.¹⁰⁾

10) Ibid, p. 145

이러한 김일성의 카프작가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시대적 여건에 따라서 시기와 동기는 각각 다르지만, 다수의 문학인들이 월북하는 해방공간의 문단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다.

이러한 문단 배경에는 미군정의 수배를 받고 있었던 박헌영·이강국·이주하·이승엽 등의 남로당 간부들의 도피 월북과 연안파 및 소련파들의 대거 북한입국등으로 해서 북한이 이상적 사회주의 혁명기지로 발전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카프와 작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다.

따라서 북한문학사 제1기 및 제2기에 해당되는 시기에는 레닌·스탈린 시대의 초기처럼 특수한 경우 이 외에는 작가들에 대한 획일적인 탄압이나 통제는 유보되고 있었다. 이것은 김일성 체제의 확립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소련의 문학사는 여러 의견들을 감안하여

- (1) 혁명진행 시기의 문학(1917~1933)
- (2) 사회주의 건설기의 문학(1934~제2차 전쟁 전·후)
- (3) 주다노비즘시대와 무갈등이론 시기의 문학 (제2차 전쟁 전·후~스탈린 사망때까지)
- (4) 체제변화의 시작과 인간성 옹호의 문학시기(후르시초프시대~고르바초프전까지)
- (5) 페레스트로이카시대의 문학(고르바초프 이후~현재까지)¹¹⁾으로 나누어 볼수 있다.

그러나 후르시초프로부터 고르바초프 이후까지의 시대는 체제변화가 시작되어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가 소련의 사회변혁을 급속하게 진행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문학사와 관계지을 수 있는 것은 레닌·스탈린 시대에 행해지던 혁명진행시기의 문학, 사회주의 건설기의 문학, 주다노비즘시대와 무갈등이론의 문학기에 해당된다.

혁명을 진행시켜가는 과정에서 사회변혁에 따른 창작 방향의 변경 요구에 작가들도 따라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북한이나 소련의 사정이 마찬가지였다.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훌륭한 예술의 전통을 수립한 러시아문학은 프롤레타리아 계급혁명이론에 쉽게 경도되지는 않았다. 그렇기

11) 장윤익, 『북방문학과 한국문학』(인문당, 1990, 서울), p. 61.

때문에 혁명과업에 전폭적인 동조의 자세를 취하지 않았던 혁명 초창기의 소비에트문학은 과거의 러시아문학과 계급투쟁의 문학이 병행하여 전개되거나 혹은 다양한 성격의 유파형성으로 등장했다.

이러한 다양성은 서방사회의 개성적 작품의 다양성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이것은 제2기와 제3기의 엄격한 스탈린 체제하에서 당의 작가로 복무해야만 했던 문학인들의 창작활동과 비교해 볼 때 작품활동의 자유성이 어느 정도 허용되었다는 말의 뜻으로 표현한 것이다.

〈평양예문협〉과 〈응향〉이 작품활동을 할 수 있었고, 『관서서인집』이 출판될 수 있었던 것도 혼란된 시대 분위기의 한 실상이며, 이것은 소련의 볼셰비키혁명의 초기 단계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과 같은 어느 정도의 다양성을 지닌 작품활동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시대적 분위기 아래에서 창립한 〈평양예문협〉은 북한의 중심예술단체라고 볼 수 있으며, 그 간부로 활동하던 오영진과 김일성의 대담은 〈프로예맹〉과의 관계는 물론, 혁명 진행에 따르는 북한 문예정책 방향의 설정을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게 한다.

지금 문학예술 단체는 와 꼭 같은 목적을 개지구 갈라져서 합작을 거부합니까? 그거야 큰 고질병이야. 요와 똑같은 목적을 갖구 있는 동지들이 단체를 둘로 갈라야 합니까? 난 그거야 답답합네다. 오는 어케 생각하슈?”

“목적이 동일하다면야 마땅히 합쳐야지요. ”

“아니 기림, 지금 평양의 예술문화협회는 예술동맹과 목적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서로 합쳐지지 않고 있는게 아니겠습니까?”

“에이, 오답지 않는 말 하지 마시오. 예술의 궁극의 목적이 뭘니까? 예술의 목적이 두 개도 되구 세 개도 된다는 소림니까? 오는 나를 아주 무식한 놈으로 치버리는구만이지!” 김일성은 피식 웃으며 오영진을 바라보았다.¹²⁾

이러한 김일성의 예술관은 마침내 〈평양예문협〉과 〈프로예맹〉과의 합동명령으로 시달되고, 각본에 의하여 두 단체의 합동회의를 개최함으로써

12) 이기봉, 앞의 책, p. 132.

써 <평양예문협>을 해체하도록 했다. 표면상으로는 통합형식을 취하여 <북조선예술총동맹(약자로 文藝總)>이라는 강력한 예술단체로 개편됨으로써 단체에 의한 사회주의 예술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응향(凝香)> 사건은 1946년 말 <문예총> 원산지부에서 발간한 종합시집 『응향(凝香)』에 게재된 구상(具常)의 시에 대하여 백인준(白仁俊)을 필두로 한 <문예총> 상임위원회 작가들의 극단적인 비판과 반동작품의 규정에서 시작되었다.

이 사건은 최명익·김사랑·송영 등의 검열원들이 원산으로 파견될 정도로 확대되어 <문예총 중앙상임위원회>의 결정서를 집행해야 하는 상태까지 이르렀다.¹³⁾

북한사회에서 작가 작품에 대한 최초의 필화사건으로 나타난 <문예총> 상임위원회의 결정서는 그 결정 내용으로 보아 어마어마한 사건처럼 보이나, 작품내용을 검토해 보면 문제를 야기할 만한 특별한 내용이나 비판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해방이 되어서 기대에 부풀었던 바램이,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는 시대적 상황에 대한 불안감의 표출이 <문예총>의 비위를 건드렸던 것으로 생각된다.

동이 뜨는 하늘에
가마귀 날아

밤과 새벽이 갈릴 무렵이면
<카쓰바>마냥 수상한 이 거리는

13)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상임위원회> 결정서 요약.

- (1) 시집 『응향』은 북조선 현실에 대한 회의적, 공상적, 퇴폐적, 도피적, 절망적, 반동적 경향을 가졌다.
- (2) <원산문학가동맹>은 이단적인 유포를 조직적으로 형성하고 있다. 실로 북조선 예술운동을 썩먹는 것이며, 아직 약체인 인민대중에게 악기류(惡氣流)를 유포시켰다.
- (3) <북조선문예총>은 즉시 시집 『응향』의 판매를 금지시킬 것.
- (4) <북조선문예총>은 이 문제의 비판과 시정을 위하여 검열원을 전국 각지에 파견하는 동시에 <북조선문학동맹>에 다음과 같은 과업을 위임한다.
 - 가. 현지(원산)에 검열원을 파견하여 시집 『응향』이 편집 발행되기까지의 경위를 상세히 조사할 것.
 - 나. 시집 『응향』의 편집자와 작가들과의 연합회의를 개최하고 작품의 검토 비판과 작자의 자기비판을 가지게 할 것.
 - 다. 시집 『응향』의 원고 검열 전말을 조사할 것.

기인 그림자 배회하는 무서운
골목. . .

이육교
복이 울자
원한에 이끼 낀 성문이 뺄개지고
구렁이 잔등같이 독이 서린 한길
위를

햇불을 <시빌>이
깨어라!
외치며 白馬를 날려
말굽소리
말굽소리

- (구상의 <黎明圖>의 전반부)

4편의 작품이 반동으로 낙인 찍힌 ‘응향’ 사건 후 구상은 “나 개인적으로
는 인간적 신념이나 그 운명의 결단에 대한 시련을 일찌감치 치름으로
써 문학적 이념이나 그 자세에 있어 대사회적(對社會的)인 모순과 살 등
을 던고서라도 문학 본령으로 일관해 보겠다는 지향을 갖게 해 주었다.”
14)고 하는 문학에 대한 새로운 신념과 뚜렷한 문학관을 가지고서 월남하
였다.

이러한 사정은 <평양예문협> 해체사건을 겪은 오영진과 1946년 평양에서
출간된 『관서시인집(關西詩人集)』에 발표된 시 <바람>이 공산당 선전선동
부장 김창만(金昌滿)에 의하여 ‘무사상 작품’으로 비판받은 양명문(楊明
文)의 월남도 북한의 제1기 문학시대에 보여진 인권침해의 실상이다.

상당수의 카프작가들이 월북하고, 북한의 몇몇 작가들이 월남하는 해
방공간의 남·북한의 문단상황은 문학은 없고 정치만 존재하는 혼란시대
라는 말을 붙여 볼 수가 있다. 좌·우익으로 갈라진 정치이념의 갈등 속
에서 <문건>파와 <문맹>파의 문단 장악 세력다툼에 밀린 한설야·이기
영·박광양·한효·송영·안막 등의 카프파 작가들은 월북할 것을 결심
하게 되는데, 이로부터 계속 이어진 작가들의 월북동기는 몇 가지 유형
14) 구상, 『구상문학전집』(성바오로출판사, 1975, 서울), <응향필화사건 전말기>.

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에 대하여 임현영은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그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1) 가장 소박한 입장으로 카프의 해체 전향문제 및 <문건>파의 세력에 밀린 <문맹>파의 간 부들이 일찌감치 월북한 경우인데, 이들은 투철한 좌경사상의 문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

한설야·이기영·안막·안함광·송영·박세영·윤기정 등이다. 그리고 이들은 월북 후 평양을 중심으로 활동했다.

(2) 정관사 사건(1946. 5) 이후 9월 총파업, 대구 10. 1사건 등으로 인한 좌익 및 <문학가동맹>에 대한 불법화 조치와 검거 선봉으로 인하여(1947. 8. 13) 월북한 경우이며, 이것은 정부수립(8. 15)까지 지속되었다.

임화·김남천·이원조·이태준·안희남·지하련·임학수·엄홍섭·박찬모·윤규섭·윤세중·김영석·오장환 등이며, 이들은 남로당 근거지였던 해주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3) 1950. 6. 25 후 월북 혹은 남북된 경우이며, 정부 수립 이후 좌익 문학인은 당국에 의하여 3 등급으로 분류되어 저작활동금지와 작품 판매 금지에 이어 보도연맹 가입이 강요된다. 이런 상태에서 맞은 6. 25는 이들로 하여금 월북동기를 유발하였을 것이며, 이로 인하여 박태원·설정식·현덕·정인택·임서하·정지용·김동석·이용악·김기림·홍구범·김진섭 등이 북한으로 사라진다.

2번째 유형의 문학인들이 거의 남로당계와 관계를 가진 작가들로 월북 이후 북한에서 시련을 겪었다면, 3번째 문학인들은 비교적 정치이념이 확고하지 않은 문인들로, 이들 역시 나중에 북한에서 일부를 제외하고는 많은 시련을 겪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¹⁵⁾

또한 이명성(李冥成)은 안희남(安懷南)의 예를 들어서 당시의 작가들은 워낙 빈궁한 생활에 허덕이고 있었기 때문에 ‘굶주림의 해결과 공산사회의 이상주의적 선전에 동화된 월북’¹⁶⁾의 경우가 많았으며, 이것은 임현영이 구분한 (1), (2)유형의 작가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월북 동기의

15) 임현영, <분단으로 매몰된 작가와 작품>, 『분단문학에서 통일문학으로』 (학민사, 1988, 서울), pp. 14~15.

16) 이명성, <월북문인, 그들은 누구인가>, 『통일지향의 문학논의』 (백문사, 1990, 서울), p. 39.

실상이다.

이러한 월북유형에 대하여 정영진(丁英鎭)은 (1) 도피월북문인(逃避越北文人), (3)지향월북문인(志向越北文人), (4) 자의입북문인(自意入北文人), (5) 타의입북문인(他意入北文人), (6) 남북문인(拉北文人)으로 분류한다.¹⁷⁾

임화·김남천·이원조·지하련 등은 (1)에 속하고, 이기영·박세영·이동규·박팔양·한효·윤기정·안함광·이태준·안희남·김동석 등은 (2)에, 이용악·배호등은 (4)에, 정지용·설정식·임학수·김상훈·엄홍섭·박노아 등은 (3)에 속한다. 그리고 이광수(李光洙)·김동환(金東煥)·박영희(朴英熙)·김기림(金起林)·김억(金億)등은 (4)에 소속시키고 있다.

임현영과 정영진의 분류는 두서너 명 정도의 작가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하고 있으나 대체로는 같은 시각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6. 25전쟁 후 북한에서 행해진 대대적인 남로당 숙청작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6·25 전쟁을 겪으면서 북한 당국에 의하여 희생된 작가들은 정영진의 분류 (5)에 속하는 남북문인들이다.

북한 <노동당>이 남북인사들로 조직한 <재북 평화촉진협의회>에서 총무 일을 맡다가 귀순한 조철(趙澈: 6·25 당시 월북)의 증언 (『죽음의 세월』, 성봉각, 1971, 서울)에 따르면 이광수의 피살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이윽고 1950년 10월 16일 밤, 차디찬 가을비가 줄기차게 퍼붓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정치보위국 간부들은 몇명의 내무서원들을 거느리고 이광수·최규동 등 중환자들이 누워 있는 교실로 들어섰다. 그날 10월 16일, 유엔군은 마침내 황해도 사리원(沙里院)을 돌파, 평양으로 계속 북상중이었다.

교실에 들어선 정치보위국 간부들과 내무서원들은 한마디 말도 없이 누워 있는 중환자들을 향해 마구 총탄을 갈겨댔다. 이날밤 교실에서는 이광수·최규동을 위시한 7~8명의 남북인사 중환자가 원통한 죽음을 당했다. 최규동의 시체는 이튿날 평양지역의 그의 제자들이 남몰래 운반하여 평양 교외의 용산 공동묘지에 묻었으나, 이광수의 유골은 어느 곳에

17) 정영진, 『통한의 실종문인』(문이당, 1989, 서울), pp. 21~43.

물었는지 찾을 길이 없게 되었다.¹⁸⁾

이광수는 이렇게 총으로 사살되는 비참한 최후를 마쳐 시체조차 찾을 길이 없다고 위의 인용문은 증언하고 있으나, 다른 증언은 “1950년 이광수가 남북된 후 자강도 만포군 별오리(慈江道 滿浦郡 別午里) 산골짜기에 연금되어 있다가 만주 길림성(滿洲 吉林省) 한인자치구(韓人自治區)로 호송되어 가던 중 피를 토하고 쓰러져 북경 계절핵병원에 급송하였으나 즉시 사망했다”¹⁹⁾고 기록하고 있다.

이밖에 6. 25 전쟁 때 남북당하거나 타의에 의한 월북의 형식으로 끌려간 작가들도 대부분 비참한 최후를 마쳤는데, 그 중 ‘김진섭·김동환·김형원 등은 평양 근교 문성리 수용소에서 고초를 겪다가 1954년 1월 내무성에 불려간 후 김진섭·김동환은 행방불명이 되어버렸고, 김형원은 감홍리 수용소로 옮겨져 제본과 포장작업을 하는 노동에 혹사당하다가 1956년 이태준 계열 숙청시에 안주(安州) 탄광 노동자로 추방당한 후 소식이 끊어졌다.

그러나 김동환에 대해서는 1958년 평북 철산지방의 집단수용소 등으로 추방되기전까지 국립출판사와 <평남일보> 교정원 등을 거쳐 남북인사들로 구성된 <재북 인사 통일촉진협의회>의 중앙위원으로 있었다는 설도 있다.²⁰⁾

김억(金億)은 1953년 휴전 직후, 작품발표가 일체 허용되지 않은 채 평양의 국립출판사 편집 교정원으로 배치되어 연명하다가, 역시 1958년 이태준 숙청시에 태공분자(怠工分子)로 몰려 평남 개천(芥川) 탄광 일반노동자로 추방당한 후 소식이 끊어졌다²¹⁾고 한다.

또한 김기림(金起林)은 1950년 9월 28일 국군의 서울 수복 때에 월북한 후, 북한 <문예총>에 근무하다가 남로당 계열 숙청시에 함남 검덕광산 노동자로 추방당했으나, 1955년 9월 정지용, 김동석 등과 함께 북한 사회안전부 밀봉가옥에서 세뇌교육을 받은 직후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나

18) 이기봉, 앞의 책, p. 280.

19) 국토통일원, 『북한 작가들의 생활상』(19, 서울), p. 117~9.

20) 한국비평문학회, 『혁명전통의 부산물』(신원문화사, 1989, 서울), p. 167.

21) 이기봉, 앞의 책, p. 282.

10월부터 집필정지를 당한 후 아직까지 생사불명한 상태로 있다.

정지용은 1950년 8월말경 미군 철수 주장 등 대남 비방방송(영어 및 대남방송용 영문번역)등으로 북한 당국의 선전업무에 협력하였으며, 1955년 9월 사회안전부 밀봉가옥에서 김기림·김동석 등과 세뇌교육을 받았으나, 1956년 12월 이태준 숙청시 반동으로 몰려 집필정지를 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1958년 9월 집필정지를 해제당한 후 아직까지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에 있다.

선량한 백성들과 많은 작가들을 희생시킨 6·25전쟁은 1953년 7월 휴전협정에 의하여 종전을 맞게 되었다. 그러나 전후의 남·북한 사정은 악화된 경제형편과 피폐한 사회불안으로 인하여 정치적인 어려움에 봉착했으며, 특히 전쟁을 도발한 북한 당국의 경우는 패전의 책임을 져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 몰리고 있었다.

그리하여 김일성은 패전의 원망을 말끔히 씻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숙청이 아니고는 책임을 면할 길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그 책임을 남로당에 뒤집어 씌우기 위하여 사회안전상 방학세(方學世)에게 사건을 조작하도록 지시했다.²²⁾

김일성은 이와 병행하여 조선노동당 제5차 회의에서 남로당을 자유주의적 경향과 중파주의적 잔재라고 비판하면서 그러한 자유주의적 경향은 적의 스파이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했다.

제5차 조선노동당회의가 끝난 직후 북한 당국은 박헌영이 당직과 외상에서 물러나자 남로당파의 중요간부들인 이승엽·이강국·임화·김남천·이원조·조일명 등의 숙청작업을 시작했다. 이것은 박헌영을 제거하기 위한 가지치기의 일환으로 여겨지나 그 이면에는 靚빨찌산파 찬양위주의 풍토에 불만을 터뜨린 남로당파 월북문인들에 대한 한설야 일파의 해묵은 반감이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북한 전내무성 부상(內務省 副相) 강상호가 잘 밝혀주고 있다.

이들은 술이 거나하게 취하면 “우리는 사회주의 사상이 선전사상이고 사회주의 운동만이 예술의 본질을 살릴수 있다는 신념으로 월북했다. 특

22) 이선교, 『韓國戰, 다시 써야 한다』(가람문화사, 1992, 평양), p. 349.

히 우리의 이같은 진보적인 예술활동은 애국자 박헌영(朴憲永) 동지가 충분히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고 그를 따라 공화국으로 올라왔다. 그러나 막상 올라와 보니 처음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크게 사정이 달랐다”며, 자신들의 월북 자체를 후회하기도 했다.

이들은 “당이 모든 작품활동을 사상의 테두리 속에 너무 맞추려 하다 보니 예술활동이 억압받게 된다”면서 “이런 환경에선 올바른 예술이 발전할 수 없다”고 靑靑치산파 찬양위주의 풍토에 노골적인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다.²³⁾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시작된 남로당파 월북작가들에 대한 대규모 검거는 고문과 회유에 의하여 대숙청의 탄압으로 번져간 것이다.

1953년 7월 30일에 기소된 조일명·임화·이원조·설정식 등의 죄상은 (1) 미제국주의를 위해 감행한 간첩행위 (2) 남반부 민주역량 파괴, 약화, 음모와 테러, 학살 행위 (3) 공화국 정권 전복을 위한 무장 폭동 행위 등 3가지 내용으로²⁴⁾ 되어 있다. 그리고 심한 고문에 견디지 못한 임화는 구류장에서 자살하려고 안경 알을 깨서 오른팔 동맥을 끊었기 때문에 출혈이 심하여 8월 3일 첫 재판 때에는 앉아서 해야할 형편이었다.

확실한 물증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북한의 군사 재판부는 기소된 작가들의 자백만을 바탕으로 조일명·임화·설정식은 사형, 이원조는 12년형이라는 최고의 중형을 선고했다.

임화가 자백한 재판기록을 토대로 하여 작품화한 마쓰모토 세이쨌의(松本清張)의 『복의 시인 임화(林和)』는 한 작가의 지병(持病)에서 오는 좌절과 야망의 갈등을 소재로 한 소설이다.

이 책은 1935년 제2차 <카프>파 검거시 감옥에 들어간 임화가 강한 생존의욕과 창작에 대한 야망에 의해서 부득이 변절함으로써 카프 해체를 주도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한 갈등의 지속이 간첩행위 등의 변절사유로 이어지는 것으로 구성되고 있으나, 사실이라는 물증자료에 의해서 검토해 볼 때, 이것은 작가의 그럴듯한 소설적 허구에 치우쳐 있다는 느낌을 다가온다.

23) 강상호, <내가 처룬 북한 숙청> (중앙일보, 1993. 5. 31)

24) 김남식, 『남로당연구·1』 (돌베개, 1984, 서울), p. 480.

그리고 이소설의 전반적인 흐름이 북한 검찰의 기소장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로당 숙청사건을 합리화하는 데 일조하고 있는 것 같다.

시인 임화에 이어 이태준, 김남천 등의 문인 그룹과 작곡가 김순남, 연극인 황철 등 월북 예술인들이 무더기로 검거돼 조사를 받았다.

‘문화혁명’ 식으로 소브르조아 사상과의 투쟁이라는 간판 밑에 남로당 파의 월북 예술인들을 말살하는 숙청작업의 일환이었다.²⁵⁾

김남천은 1947년 월북한 후 1947년부터 53년까지 <문예총> 서기장, 1948년 8월부터 최고인민회의 제1기 대의원을 지낸 후, 1953년 남로당 숙청시에 반동작가로 투옥된 이후 행방불명되었으며, 12년 형을 받은 이원조는 1955년 4월 평양 감옥에서 자살했다는 설이 있다.

또한 중국 동북부 지방에 있던 임화의 처 지하련(시인)은 “남편의 사형선고 소식을 듣고 1953년 평양에 돌아와서 중앙당과 내무성에 남편의 면회를 요청했으나, 남편의 면회가 좌절되자 그녀는 정신이상자처럼 헛소리를 외치며 평양 시내를 배회했다. 이를 본 많은 평양시 인민들은 저 여자가 임화의 부인이라며 동정의 눈길을 보내기도 했다. 이같은 소문이 평양 시내에 널리 퍼지자 그녀는 며칠 후 내무서원에 연행되어 평안북도의 한 집단수용소에 끌려가 행방불명이 됐다.

이러한 사형집행 내지 탄광과 협동농장에 정배된 예술인들의 가족은 강제수용소를 비롯하여 방직공장, 고무공장 직공으로 배치되어 24시간 감시를 받는 요시찰 인물로서 갖은 학대를 받았다.²⁶⁾

이원조의 부인 이정원(李貞媛)과 딸 동숙(東淑, 당시 21세 대학생)은 자강도 강계시(慈江道 江界市)에 있는 고무공장과 금양관리소에서 배치되어 직공과 점원으로 일한 것도 예술인 숙청 후속조치의 일환이었다.

“남로당과 월북 작가들의 숙청작업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김일성 수상을 비롯한 당·정 고위인사들 대부분이 소속 정파를 초월해 이태준·김순남(유악가)·최승희(무용가) 등 세 사람을 ‘우리 한민족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천재적인 예술가들’ 이라며 공·사식을 가리지 않고 칭찬

25) 강상호, 앞의 신문, 1993. 5. 31.

26) Ibid, 1993. 6. 21.

을 아끼지 않았다.”²⁷⁾

그러나 1946년 월북하여 8월 11일에 방소 문화사절단에 참여하여 (소련기행)을 발표하고, 1952년부터 문예총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직책을 맡은 이태준은 <농토>·<첫 전투>·<호랑이 할머니>·<38선 어느 지구에서>·<고향길>·<미국대사관> 등의 작품을 썼다

그러나 한설야 문단과 이태준 추종자들과의 갈 등의 결과로 이태준은 1956년 1월 12일 평양시당 문학예술 출판부 열성자 회의에서 부르조아 반동작가, 미제의 어용문학 예술가로 비판받고 작가동맹에서 추방되었다. 그 후 함남 노동신문사 교정원으로 배치되었다가, 1957년 북한 함흥 콘크리트 블록공장 노동자로 일했다는 증언이 있으나 그 이후의 행방은 알 수 없다.

한설야에 추종하여 임화와 이태준 계열의 문화 예술인들의 숙청을 도와왔던 안막(安漠)은 1946년 3월 문학예술 총동맹 상무위원, 1946년 7월 조선문학과 예술의 기본임무 발표, 1956년 2월 문화선전상 부상, 1956년 10월 조선작가동맹 상무위원, 그해 11월 북한-소련간 문화교류 계획에 의한 문화예술단장으로 소련을 방문한 후 1959년 4월 작가대회에서 부르조아 작가라고 비판받고 행방불명이 되었다.

또한 10년 이상을 북한 문화 예술계에 제왕처럼 군림하면서, <남로당>과 월북문인들과 이태준·안막 등을 숙청하는 데 앞장을 섰던 한설야도 1962년 12월 중과주의자, 북고주의자, 출신성분 등으로 비판받고 자강도 시중군 중인협동농장으로 추방된 후 현재 생사불명이다.

이러한 월북 작가들의 숙청은 북한 문학이 제1기와 제2기, 제3기를 거치면서 실행되었으며, 제4기의 천리마시대에 접어들자 김일성 유일체제가 본래도에 올라섰다. 이러한 유일체제의 시대를 맞으면서 새로운 신진 작가들이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월북 작가들의 이용가치는 소멸된 것이다. 이태준·안막·한설야 등의 숙청은 김일성 주체사상과 주체문예의 확립을 위한 전술 전략이며, 이것은 작가들의 탄압을 더욱 심화시키는 강요된 창작활동과 유일체제가 가져오는 개인우상숭배의 문학으로 진행

27) Ibid, 1993. 5. 31.

되었다.

4. 강요된 창작활동과 주체문학의 전개

북한의 문예이론을 대표하는 것은 주체문예 이론이다. 이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문예이론에 적용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주체문예 이론은 그 발상에서 적용에 이르기까지 문예이론으로서의 일반화가 포기된 북한만의 이론이라 할 수 있다.

(1) 모든 문예작품과 이론이 개인의 이상화를 위하여 바쳐지는 점

(2)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미학적 범주와 성질이 주체사상·민족적 형식·속도전이론·종자론·영생주의론 등으로 변질되었다는 점

(3) 논쟁과 비평행위가 전무하다는 점

(4) 공산주의 인간학으로서의 문예라는 전제 아래, 문예의 사회주의적 미학의 성질을 개인문학이나 예술이 아닌 사회과학으로 변형시켰다는 점

등은 여타의 공산권과도 일치되지 않는 특징들이다.²⁸⁾

흥기삼이 요약한 바와 같이 북한의 문예이론은 문예이론가인 김일성에 의해 만들어지고 그것이 국가의 헌법과 동일한 법률적 효력을 보유함으로써 북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건설의 필수적인 수단으로 채택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작가들은 <문예총>과 <작가동맹>의 철저한 통제하에 김일성부자(父子) 이상화 및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 등의 당정책과 부합된 주제의 작품만을 창작하도록 강요받기 때문에 작가 개인의 순수문학 창작활동과 자유로운 저서 출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모든 작가는 <문예총> 산하의 <작가동맹>에 맹원으로 등록되어야 창작활동을 할수 있으며, 작가들의 창작활동은 소속 <작가동맹>의 창작실에서 단체로 근무하고 일반 근로자에 준하여 일과가 끝난 후에는 2시간

28) 흥기삼, 『북한의 문예이론』 (평민사, 1981, 서울), p. 11.

의 사상학습과 1일 사업총화 토론을 가지게 된다.

작품창작은 당의 창작계획에 의해서 개인별로 선정된 소재의 내용과 연·분기·월별 계획량을 작성하여 인준을 받아야 가능하며, 완성된 작품은 <지부작가동맹>의 1차 심사를 거쳐 <중앙작가동맹>의 2차 심사에 이어 문화예술부의 최종심사를 받은 후에 발표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창작 과정에서 작가의 개성은 거의 소멸되거나 밀납인형의 물개성적 체념에 빠지게 된다.

각 작가들은 양적인 배당에 맞도록 연간·분기간·월간 창작계획을 작성하여 소속 분과위원회에 제출한다. 작가동맹에서는 이를 종합하여 중앙당 문화예술부에 제출하여 비준을 받는다.

작가들의 창작은 무조건 이 계획에 의거해야 하며, 창작활동은 작가동맹 지도부의 엄격한 통제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단 부득이 주제를 변경시켜야 할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에 사유서를 제출, 상부 승인 후에 바꿀 수 있다.²⁹⁾

작가들이 당의 창작계획에 의하여 통제받아야 하는 작품주제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김정일 영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덕성을 부각시키는 내용
- 김일성 부자를 모시는 주민들의 긍지와 민족적 자부심에 대한 형상화
- 모든 사회를 주체사상화 하며 조국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당원과 노동자들의 투쟁 모습
- 탄광·농장·건설장 등에서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혁신을 일으키는 노력 영웅들의 모습 형상화
- 반미·반파쇼 투쟁과 남조선 인민들의 반정부 통일투쟁 모습
- 세계 혁명적 인민들과 국제적 연대성 등의 범주내에서 창작활동을 하도록 규제³⁰⁾

이와 같은 제한된 주제만으로 작품을 창작하도록 감독하는 북한의 문화예술부는 매년 1월 당해연도 사업총화 회의를 개최하여 모든 작가들의 전년도 창작사업 성과에 대한 비판과 아울러 당해 연도의 창작방향을 제

29) 국토통일원, 앞의 책, p. 36.

30) Ibid, pp. 36~43까지의 요약.

시한다. 이러한 문예정책은 북한사회에서 <피바다>식 예술과 집체문학론이라는 기이한 문예현상을 초래케 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소련의 주다노비즘³¹⁾ 시대와 무갈등이론의 문학을 답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무갈등이론과 주다노비즘은 일인체제의 영웅주의를 만들어 내었다. 그것은 역사의 번조를 통하여 개인 신화 창조의 단초를 마련했으며, 모든 예술이 독재자를 숭배하는 당의 선언문 구실에 불과했다.

스탈린은 ‘국민의 아버지’, 사회주의 건설자·위대한 천재적 군인·전쟁의 승자로 신격화 되어, 그의 70세 생일날에는 아침과 찬사로 가득찬 시와 소설이 대량으로 출판되었다. 소련을 여행한 앙드레 지드는 이러한 예술현상을 ‘참기 어려운 사실’로 표현했다.³²⁾

북한의 대표적인 서사시와 소설로 평가받고 있는 조기천의 <백두산>과 이기영의 <두만강>은 모두 김일성을 주인공으로 한 항일투쟁사의 작품이다. 이 두 작품은 모두 김일성 우상화의 극점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되며, 1980년대 후는 김일성 부자의 우상화에 비쳐지는 작품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너, 백두야! 조선의 산아 말하라
어떻게 떨어졌던 태양이
이 나라에 솟았느냐?
떨어졌던 태양이 다 솟은 그때
네 누구를 맞이했느냐?
...중 략...

너는 이름만 들어도
삼도 왜적이 치를 떠는
조선의 빨치산 金대장!

-(조기천의 <백두산>의 일부)

31)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스탈린의 분신으로 알려진 당시기 검 정치국원인 안드레 이 주다노프 (Zhudanov)에 의하여 시행된 강압적인 문예통제 정책을 주다노비즘으로 통칭했다.

32) 장운익, 앞의 책, p. 82.

가실 때면
그 큰 믿음
희망의 나래를 펼쳐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불판을 따라 자욱자욱 이으시다
불쇠를 다루시는 압연공의 이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나니
쇠물인양 뜨거움이 가슴 치밀어
목이 메이고
-(최장수의 <약속(1985)의 일부)

북한의 문예창작은 위에서 나타난 것처럼 강요되거나 계획된 작품을 생산하는 정책적 과업에 의한 창작활동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작가들은 김일성 우상화를 위한 자동인형이 되지 않으면 작가로서의 위치가 상실될 뿐만 아니라 집단수용소나 강제노역장에 이끌려 가야 하는 처참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개성이 사라진 작가들의 작품들은 감동과 설득의 구체적인 공감을 마련하기 보다는 천박한 관념의 나락으로 떨어져서 마침내는 집체문학이라는 예술의 후퇴성을 가져온 것이 북한문학의 현황이라고 평가해 볼 수 있다.

5. 마무리

이상에서 살펴본 북한사회의 인권현황과 작가들의 인권탄압 진상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1) 북한사회의 인권현황은 인권의 기본개념이나 유엔의 인권선언 및 대부분 나라들이 명문화 하여 실천하고 있는 헌법사항들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이것은 북한사회가 인간의 기본권이 되는 평등권과 자유권은 말할 것도 없고 가장 기초적인 생존권조차도 유지할 수 없는 총체

적 인권탄압의 폐쇄적인 체제라는 것을 명백한 사실로 확인시켜 주었다.

2) 북한 작가들의 인권탄압 과정은 소련의 문학사 전개과정과 유사하며, 제1기 및 제2기의 시대에는 소련의 레닌·스탈린시대의 초기처럼 획일적인 탄압이나 통제는 유보되었다.

3) ‘평양예문협’의 해체와 ‘응향’ 사건 및 ‘관서시인집’ 사건은 북한의 사회주의 혁명과정에서 나타난 북한문학 제1기 시대에 행해진 작가들에 대한 인권탄압 실상이었으나 이때는 김일성 체제가 확고하게 뿌리내리지 못했던 관계로 집단적인 숙청은 실행되지 않았다.

4) 작가들의 월북 동기 및 유형은 (1) 카프의 해체 전향문제 및 <문건>과 세력에 밀린 <문맹>과의 간부들이 일찌감치 월북한 경우 (2) 좌익 및 <문학가동맹>에 대한 불법화조치와 검거선봉으로 인하여 월북한 경우 (3) 6·25 후 월북 혹은 납북된 경우이며, 이것은 도피 월북문인, 지향 월북문인, 자의 월북문인, 타의 월북문인, 납북문인 등으로도 분류할 수 있는데, 이는 월북작가들의 숙청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5) 이광수를 위시한 납북 작가들과 임화를 비롯한 남로당파 월북작가들인 이태준·안막·한설야 등의 숙청은 김일성 체제확립을 위한 전술·전략적 인권탄압이며, 본인의 생사불명은 물론 가족들에게까지 인권유린을 자행한 현상은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가혹한 인권침해이다.

6) 천리마운동으로부터 시작되는 북한의 제4기, 제5기의 문학은 강요되거나 계획된 작품을 생산하는 정책적 과업에 의한 창작활동이며, 따라서 작가들은 김일성 우상화를 위한 자동인형이 되지 않으면 작가로서의 위치가 상실될 뿐만 아니라, 집단수용소나 강제노역장에 이끌려 가는 처참한 인권탄압을 받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북한작가들에 대한 인권침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며, 이것은 우리 예술인들이 시급히 타개해야 할 기본적인 과제라고 생각한다.